

## 건협 임한종 회장, 외국인 노동자 의료봉사에 참여



시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봉사에서

한국 건강관리협회 임한종 회장은 경동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봉사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료봉사는 5월부터 첫째, 셋째 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내의 수도권 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환자에 대해 무료 종합건강진단 및 진료를 실시한다.

한편 건협 서울지부는 4월 23일 경동교회를 방문하여 외국인노동자 78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 경남지부, 노인 대상 강연회 실시

경남지부는 지난 4월, 마산 진북면의 6개동 경로당에서 마을 노인 245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강연회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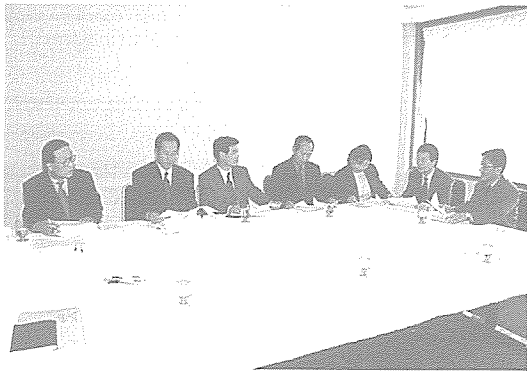
## 울산지부, 공개강좌 협찬

울산지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현대문화센터에서 부일여성문화대학 여성회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공개강좌에서 보건의 달 행사 일환으로 여성질환 검진권을 증정했다.

## 강예진(경기도 안산 중앙초 5), 강지원(서울 영풍초 2)양에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대상 금연글짓기 -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소년한국일보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박람회 2000의 후원을 얻어 실시한 '2000년도 전국 초등학교 대상 금연글짓기 현상공모'에서 강예진양(경기도 안산 중앙초등학교 5학년)과 강지원양(서울 영풍초등학교 2학년)이 고학년부와 저학년부 대상(大賞)을 각각 차지했고, 박언주(서울 도성초등학교 2학년), 이정우(경기도 부천 남초등학교 3학

년), 김지은(서울 지운초등학교 4학년), 장한솔(경기도 인양평촌초등학교 5학년), 나여진(강릉교동초등학교 6학년) 등

이 금상을 차지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와 금연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일깨우는 한편, 조기금연교육을 통해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장기적 측면에서 금연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된 이번 글짓기에는 전국 초등학교 학생 10,926명이 응모했으며, 대상·금상을 비롯한 총 7개 부문에서 942명의 학생이 상을 받게 되었다.

올해의 금연글짓기 작품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중·고등학교 학생 등 가족의 건강에 대한 어린이들의 걱정과 사랑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 청소년 흡연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에 대한 최종 심사는 지난 5월 8일에 있었으며, 5월 30일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건강박람회 2000 건강배움터에서 기졌다. 또한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치흥봉 보건복지부장관과 임한종 회장으로부터 각각 상을 받았다.

한편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입상자에 대한 상장과 부상은 6월중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시도지부를 통해 각 학교로 전달될 예정이다.(관련기사 30,31쪽)

## 박관수씨 「할아버지, 담배 연기는 싫어요」 대상(大賞) 수상

- 2000년도 제1회 금연사진공모전 -



박관수씨(서울 동대문구)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박씨는 성인 흡연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주제를 담은 “할아버지, 담배 연기는 싫어요”를 출품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유경선 사진학과장, 김형인 조선일보사 사진부장, 최병오 사진작가협회 지문위원장, 보건복지부 박용주 건강증진과장, 사진작가 허용선씨, 한국건강관리협회 박준영 건강증진국장 등이 맡아 실시했으며, 대상 외 58명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한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5월 30일 건강박람회 2000 행사장(잠실올림픽공원내) “건강 배움터”에서 있었으며, 박람회 기간인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박람회 행사장에서 전시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한 제 1회 금연사진 공모전에서

지난 5월 12일 한국일보사 회의실에서 있었던 작품심사는 중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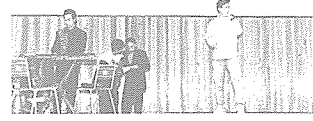
### 광주·전남지부, 지역주민 대상으로 강연회 개최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28일 협회 보건교육관 및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건관계자, 일반 지역주민 및 노인회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 ‘여성암’ 등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방청객에게 추첨을 통해 종합검진권이 제공하여 지역주민 보건의식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 대전·충남지부, 보건가족한마음 대회 참석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4월 15일 대전광역시에서 제 28회 보건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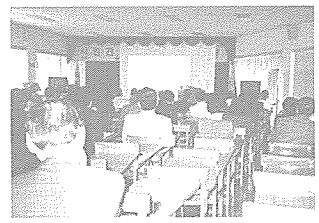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보건가족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시·구 5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유관단체 등 총 350명이 참석했으며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배구경기 및 화합의 한마당 등의 행사가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대전·충남지부는 배구경기 3위, 노래자랑은 안병수씨가 2위의 영광을 수상하였다.

### 부산지부, 공개강좌 실시

부산지부는 지난 4월 6일, 20일 양일간 지부 홍보관에서 박정현, 문한규 박사의 강의로 ‘당뇨병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만성간질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313명의 부산시민



에게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 대구지부, 대구교도소에서 강연회 가저



대구지부는 지난 4월 17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성인병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수강자 90명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했다.